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2002 국민 독서 대토론회 개최

우리 협회 등이 후원하고 문화일보 등이 주최하는 '다시 책이다' 국민독서운동의 일환으로 '2002 국민 독서 대토론회'가 3월 4일 개최되었다.

'정보사회, 왜 독서혁명인가?'를 주제로 한 이정춘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문화 인프라 정책과 독서환경'에 대한 발표와 한상완 책 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공동대표의 '책 읽는 사회를 위한 제안'이 있었다.

먼저 이정춘 교수는 우리의 생활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 수용과 독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책 읽는 사회를 위한 문화 인프라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유럽에서는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새로운 미디어들이 여가 생활과 독서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종이책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다매체 경쟁 상황에서 야기되는 책의 위기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었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비독서자들의 문화적 소외와 이에 따른 문화 민주화에 대한 논의들로 이어져 왔다고 언급하였다.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대체로 독서에 비하여 텔레비전 시청이 3.3~5배나 많다. 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인쇄 미디어들에 대한 강력한 시청각 미디어들의 공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서력은 문장과 그 조직을 읽고 이해하여 그 내용을 의식에 담는 숙련의 과정을 통해서 터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서관 사정은 국가 경쟁력이나 인적자원 수준, 문화역량 등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다면서 독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이용이 '참여매체'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생활세계에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출판산업 진흥과 독서능력 진작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정책들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도서관 확충을 통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참여매체로써 평생교육 기관의 정착을 통한 지원, 셋째, 출판업계의 자구적인 공동 노력, 넷째, 국가기관과 기업들에 의한 제도적 지원, 다섯째, 미디어정책에 출판계의 입장 반영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여섯째, 제도교육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한 한상완 교수는 전 국민에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지식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사회 문화적 장치라고 규정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육의 시·공간이 확대되고, 교육의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에서 전 계층으로 확산되며, 지식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정보공유에 있어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전화되면서, 획일적인 교육방법에서 다양한 매체를 교육방법 등으로 설명되는 일련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도 '학교도서관 진흥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의 방안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책 읽는 사회를 위해서는, 첫째,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책을 읽고 그 소중함과 기쁨을 누리는 환경을 마련, 둘째,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과감히 개혁, 셋째, 1만여 개의 학교도서관, 400여개의 공공도서관에 양서와 콘텐츠를 공급할 혁신적인 출판문화 진작을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 넷째, 책을 읽고, 책을 사랑하는 국민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정신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